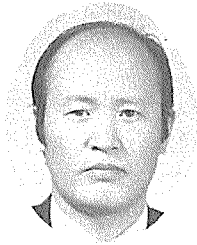


— 綜合商社는 이렇게 생각한다 —

最近의 原油市場 動向과 原油導入 方案



韓 敏 燮

〈大宇實業·石油事業部長〉

1. 國際原油市場

國際 原油市場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면 정확히 어디라고 대답하기 곤란하다. 現物市場을 흔히 로테르담, 런던, 싱가포르 뉴욕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現物이 그곳에 있는 것도 아니며, 原油市場도 어느 곳이라고 말할 수 없고, 產油국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地球가 國際原油 市場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는 地球 全体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과 관련하여 原油市場의 動向을 알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 部分을 놓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 原油市場이라 하겠다.

現物市場의 가격이나 GSP가 얼마냐는 原油를 다루는 뉴스나 간행물에 있으니 現在의 상태가 어떤 方向에서 어느 곳으로 갈것인가를 얘기하고자 한다.

韓國의 原油소비는 全世界 소비에 比하여 극히 작고, 日本의 약 10%정도 소비하고 있으나, 연간 약 60억달러 이상 땀흘린 돈을 原油구입에 使用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큰 문제중에 문제라 할 수 있다. 우선 OPEC의 現油價체제가 어떻게 될 것이며, 계속 油價下落이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고자 한다.

OPEC原油生産이 계속 감소하더니 지난 1/4 분기중 20년만에 처음으로 自由世界의 非OPEC產油國의 產油量보다 밀돌게 되었다.

1/4分期中 自由진영의 非OPEC產油國의 生産量은 하루 平均 2,160만 배럴이었으나, 13개 OPEC會員國의 產油量은 2,030만 배럴이었다.

OPEC會員國의 產油量은 금년 1월 하루 平均 2,180만 배럴에서 3월 中에 1,840만 배럴로 감소했다.

〈表1〉에서 보면, 非OPEC國의 生産이 점차 증가한데 比하여 OPEC國의 生産量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구나 生産量이 相當히 감소했음에도 購買者를 求하기 힘들어졌다. 그리고 요즘 石油危機는 사라졌다고 發表되고 있으며, 價格下落은 一時的인 것이고 長期間 낮은 油價가 유지될 것이라고 展望하고 있다.

이러한 現象이 생긴 배경을 알아보면, 첫째, 1979-1980년에 치솟은 油價충격을 市場은 계속 흡수해서 需要 供給의 法則이 作用되어 石油消費가 줄면서 에너지보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되었다. 2年間 世界적인 石油소비는 10%감소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둘째, 政治的 및 經濟的 理由로 사우디 아라비아의 통치자들은 그들의 財政에 필요한 以上으로 生産을 지속하도록 결정해서 油價單一化, 長期契約의 극대화와 美國의 軍事보호의 보장을 교환 받고자 원했다.

셋째, 世界景氣 감퇴로 石油소비가 상당히 줄었고 大量에너지 使用工場들이 문을 닫았다. 美國의

現物價格이 싸다고 무작정 많은 量을 導入할 수도 없고 저장할 方法도 없다.

長期契約이 대부분인 現在の 실정에서는 GSP의 引下와 사우디의 基準價 引下에 期待를 걸수 밖에 없다.

요즈음 油價自律化 추진은 다시 中東偏重으로 가는 느낌인데, 低硫黃油 공급을 위해서는 中東偏重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철강산업, 自動車산업이 조업을 단축하거나 문을 닫았던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

〈表2〉에서 보면, 油價가 平均 1\$/B以下였던 1965-1972년에는 世界GNP가 5%의 成長을 보였으나, 平均油價가 26.74\$/B인 1979-1981년에는 世界GNP가 3%미만임을 볼수 있다. 1973년과 1979년의 油價는 油價를 몇십배 증가시켰고, 西歐의 경제를 침체시켰다.

〈表3〉에서는 美國의 석유소비가 감소하고 따라서 全体수입과 OPEC國으로부터의 輸入이 줄어 1973년 以前 수준으로 갈 것같은 豫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原油價格의 下落을 豫상할 수 있으며 사우디의 基準價가 34\$/B이 28-24\$/B로 내릴 것이라는 展望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基準油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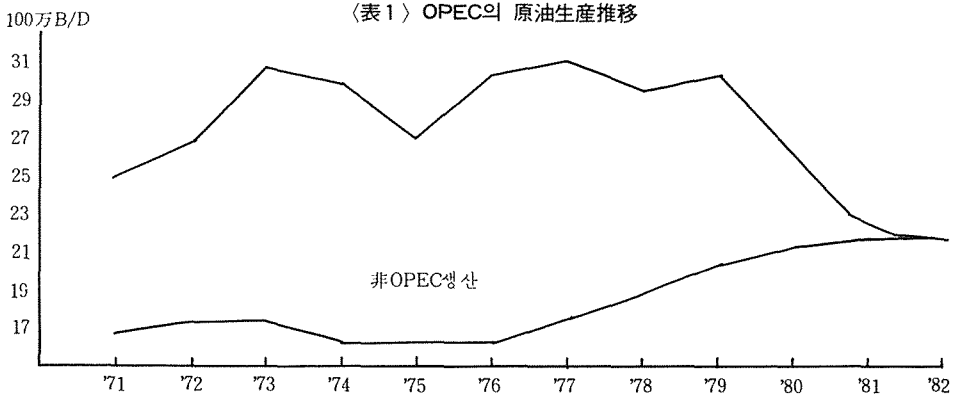
34\$/B은 OPEC國內에서 사우디가 他意에 依해 引上되었음을 감안하면 내릴 것이라는 豫상은 수긍간다고 할 수 있으나, 몇가지 점에서 石油危機의 불씨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現在の OPEC國이 맞고 있는 價格引下 壓力은 OPEC으로 하여금 結束을 公告히 할 여지가 있으며, 둘째는 油價가 높았을 때는 美國 등 여러 나라에서 代替에너지 개발과 石油開發에 열을 올렸으나, 原油價가 계속 내리면 코스트가 높은 石炭액 화 및 셰일·오일(혈암) 등의 개발은 중단될 것이며, 값싼 原油를 輸入하게 되어 全体의 소비가 늘어 나게 된다. 셋째,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수요는 계속 上昇하고 있다. 넷째, 中東國家 및 產油國에서의 政治的인 不安으로 全体의 生産量이 감소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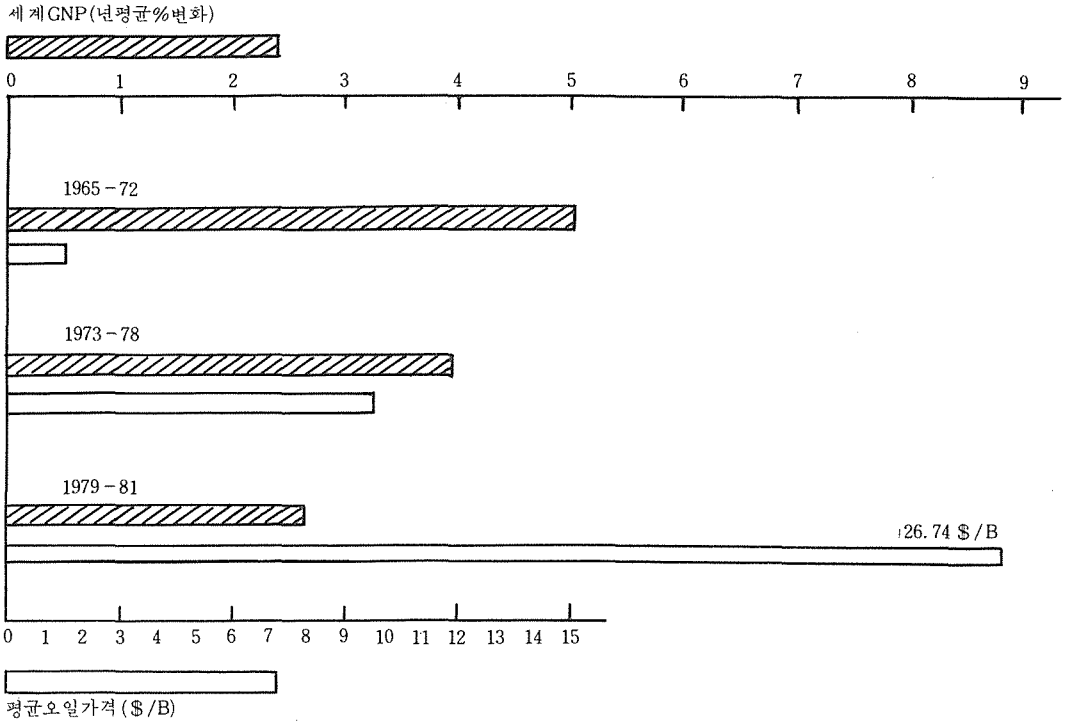
이란-이라크 전쟁과 사우디의 메카寺院사건이나 PLO의 광분등은 언제 사우디의 油田시설에 파괴를 가져올 지 모른다. 現在 最大原油輸出國인 사우디의 경우 現할리드王 이후 王位계승에 미묘한 문제가 있고, 最大의 原油船積港인 라스타누라 港의 경우 安보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다.

現在 라스타누라 港口에는 요르단, 레바논 국적등을 가진 팔레스타인인의 취업을 금지시키는 內規가 制定돼 있는데 이러한 불만과 이스라엘과 PLO의 문제에 따른 파괴활동 可能性도 있으며, 그 경우 原油輸出활동은 중단된다. PLO의 파괴활동에 페르시아만의 諸國들이 극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점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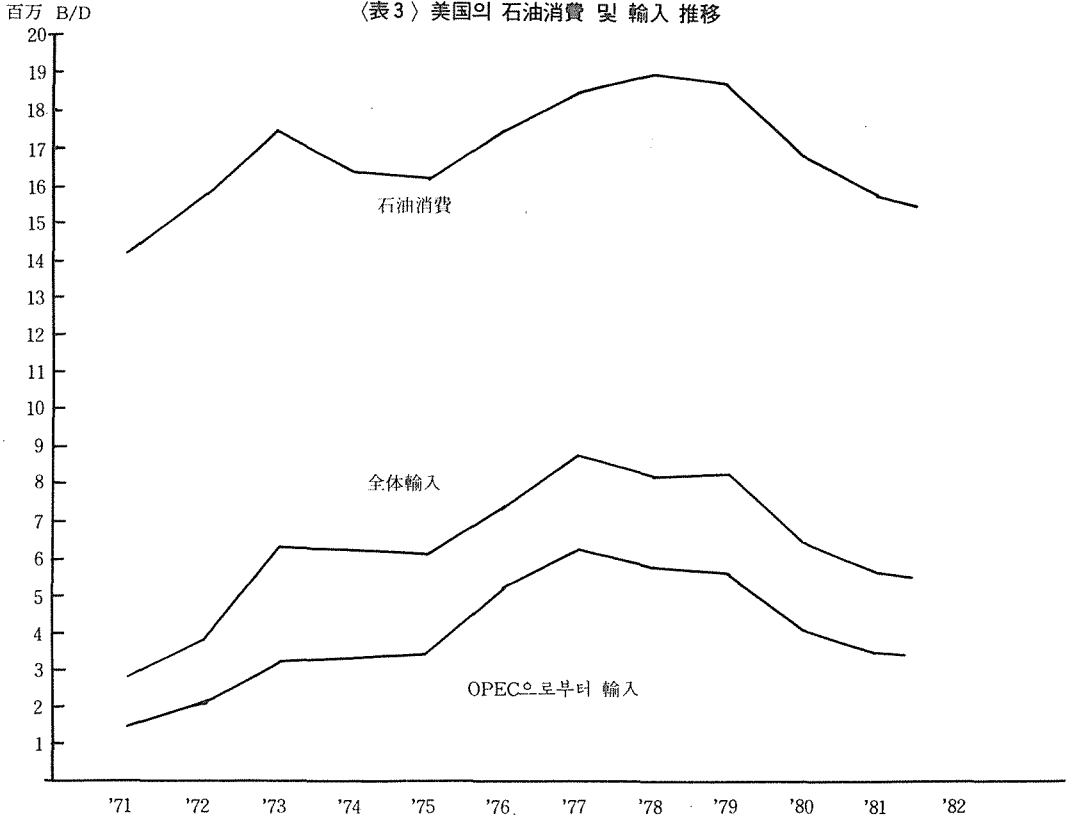
〈表1〉 OPEC의 原油生産推移



〈表2〉世界 經濟成長과 油價상승 比較



〈表3〉美国의 石油消費 및 輸入 推移



韓國에서 도입하고 있는 大部分의 原油는 長期契約임을 감안하면, 싫던 좋던 OPEC國들의 價格引下에 기대 할 수 밖에 없고 長期的인 안목에서 國際原油市場에 대한 연구와 관찰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2. 原油 導入 方案

政府는 油價自律化의 方向으로 나가고 있다. 보다 저렴한 原油를 도입하고 국민에 싼 石油製品을 供給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하겠다. 이것은 民間주도경제로 나가고자 하는 것과 相通할 수 있다 하겠다. 과거의 原油物量 확보 置重에서 低油價原油 確保로 나가고자 하는 요즈음, 문제는 大部分의 原油가 中東에서 導入되고 있는 實情이어서 中東產 原油價格이 下落되어야겠다는 것이다.

아랍 미디엄을 導入하면 한국에서는 가장 낮은 原油基準價가 되었으나 요즈음 사정이 다르게 되었다. 더 싼 現物市場 價格이 많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現物價格이 싸다고 해서 무작정 많은 量을 導入할 수도 없고 저장할 수도 없다.

長期契約이 大部分인 現在의 실정에서는 GSP의 引下와 사우디의 基準價 引下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 中東의 편중에서 一部를 다른 產油國에서 導入코자 導入先 多邊化를 추진하고 있는 요즈음 油價自律化는 다시 中東편중으로 가는 느낌이다. 또한 공해를 고려한 低硫黃油 供給이 必要한 點을 감안하면 中東편중에서 벗어 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原油導入에 대한 나름대로의 意見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이 얘기 하고 싶다. 첫째로 原油도입선 多邊化는 추진되어야 겠고, 앞에서도 얘기 했지만, 中東에서는 政治的인 不安을 생각해야겠다. 호르무즈해협에 油槽船 1척만 가라앉아도 全世界의 原油 需給에 막대한 차질을 준다는 것은 잘 알려진 事實

이다. 또한 한국경제도 輸出 규모가 커져서 世界各國과 활발한 交易를 하고 있으며, 建設部門에서의 活動이 또한 큰것을 감안 할 때, 當事國과의 經濟協力 關係를 고려할 때가 된 것이다.

韓國의 代表的인 精油社인 油公, 湖油가 全体 精製量의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에 世界 메이저로부터 原油供給을 安定的으로 받았음을 알 수 있다. 產油國에서의 메이저역할이 감소되고 原油供給기능이 감소되고 있다면 우리는 힘으로 原油 구매능력을 길러야겠고, 경제적이고 良質의 原油를 長期間 導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다.

둘째로 요즈음과 같이 現物市場의 油價가 쌀 때, 導入할 수 있도록 導入기능과 장치가 마련되어야겠고, 종합상사가 지닌 海外정보기능 및 海外금융기능을 최대한 利用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政府의 도입장치 마련과 精油社 및 綜合商社의 협력體制를 갖는 것도 좋은 方法이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로 原油導入과 油價自律化와의 關係를 고려할 때 油價의 完全自律化가 現實的으로 어렵다고 생각될 때, 原油의 導入 또한 신중히 생각해야겠다. 原油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할 때 原油導入은 政府의 介入을 배제 할수 없다고 생각된다.

產油國과의 政治 및 經濟協力관계도 고려되어야 겠고, 또한 原油自體로 끝나지도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輸出과 海外建設을 촉진하여 國內景氣를 높여야겠다는 大前提가 成立되어야 한다면 마땅히 原油導入문제는 一方通行式의 思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된다. 과거 韓國經濟가 규모면에서나 質的인 면에서 작고 약했던 60년대가 아니고 80년대의 大單位 숫자에서 우리가 살고있으면 큰 比重을 차지 하는 原油導入도 이에 맞추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정 · 부패 · 인플레이心理를 追放하자